

또 하나의 은총

유재문(아가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단풍잎이 길 위를 수놓는 11월 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환우들이 기억되는 위령성월이자 이로 인해 한해를 돌아보게 되는 계절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지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진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제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을 나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몸이 남들처럼 건강한 편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며 자연스럽게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받고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두렵고 딱딱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봉사하며 환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족함을 느끼며, 환자에게 도움은 아니라 부담감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때론 선부른 이해와 관심이 상처가 될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앞서 실수할 때도 있고, 습관처럼 봉사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마음으로 힘들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에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내가 우선 순위로 여기니 저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이 봉사하는 날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스피스봉사자는 환자의 소중한 때론 간절한 시간을 같이하고 고통과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사랑과 감사, 희망, 추억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 돌보는 것,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임을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환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봉사자들이 있기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호스피스 봉사는 사랑과 돌봄을 전제로 까다로운 면이 있으며 오랜 경험과 돌봄에 관한 재교육이 필요한 봉사라 여겨집니다. 그



그러면서 호스피스 봉사는 내 모든 삶의

리고 봉사는 환자와의 책임 있는 약속입니다. 호스피스 봉사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지를 알게 하시고, 봉사하며 남을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며,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환우들의 삶의 의미와 지혜를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환자들의 미소 하나에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봉사는 내 삶을 성찰하고 웬지 모를 허한 부분을 채워주며 가치를 발견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내 삶에 들어오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명해졌습니다. 곧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영원한 삶은 이승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과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봉사자 각자는 다르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여 서로 마음을 맞춰 가고 응원하며 함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몫을 선택한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듯 저를 한발씩 이끌어 주심에 눈물 나게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신입회원 명단

▶ 평생회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김숙남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김소영

▶ 일반회원

- 국제성모병원 : 유채원, 지아년, 정현지, 오민경, 서혜림, 유숙향, 엄나성, 김선혜, 이정옥, 최은실, 김계엽, 강은자, 박지영, 김한자, 김중진, 김운순, 김인자, 김은숙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 황관옥 회장, 서울성모병원

